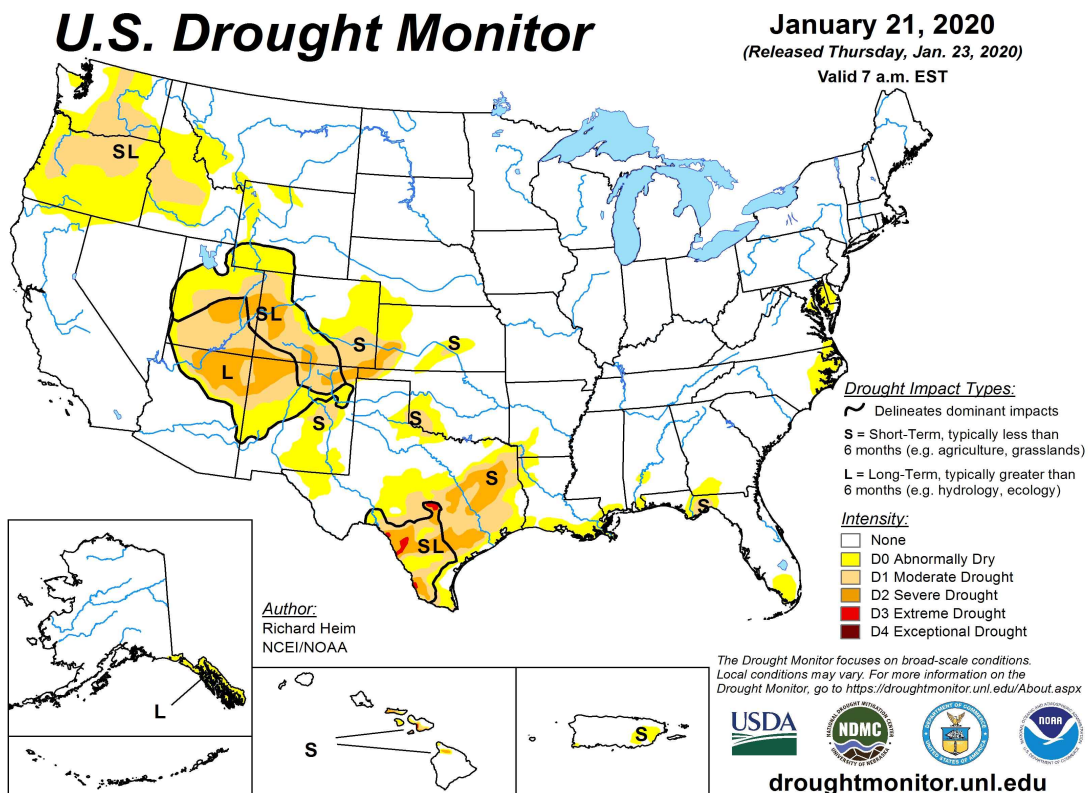


1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4)

□ 미국 기후 현황(1/19~1/25)

태평양 폭풍이 북서부에 계속 비를 뿌려주었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부터 높은 평원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먼 동쪽은 주간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내내 폭풍이 불었다. 주초에 전선이 북동쪽에서 멀어짐에 따라 찬 공기가 잠깐 동안 동부의 절반을 가로질러 내려앉았다. 실제로 몇몇 남부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남동부에서 일시적 한파는 대체로 1월 21~22일에 절정에 도달했는데 플로리다 내륙 남부처럼 먼 남쪽에서는 22일에 가벼운 동결이 있었다. (주초의 기온은 미주리 주 북부처럼 먼 남쪽에서는 0° F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고 노스다코타 동부와 미네소타 북부에서는 산재적으로 -20° F 이하의 수치도 보고되었다.) 나중에,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우 전선이 중부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대체로 가볍거나 적당히 많은 양의 강우를 일으켰다. 중앙 평원에서부터 중서부까지 뻗어 있는 강우 띠에서 북쪽 가장자리에는 약간의 눈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온화하여 이전에 중서부 전체에 걸쳐 있었던 추운 날씨를 몰아내었다. 호대호 위쪽 지방과 대분지 북부에서부터 몬태나까지 산재된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정도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19~1/25)

■ 유럽: 중유럽과 북유럽의 넓은 면적에 걸쳐 있는 고기압으로 대륙 대부분이 건조하면서 온화한 날씨를 유지했지만 이베리안 반도에는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프랑스와 영국 동부는 맑은 하늘과 거의 평년 부근 또는 평년 이상의 기온이 우세했지만 (북동부 작물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8° C 높음) 체코에서부터 발트해 연안국들까지는 몇 건의 가벼운 소나기 (1-10 mm)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 북서부의 많은 지역에서 오래 끌었던 단기 건조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 지역적으로는 25 % 미만)가 봄 성장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감소시켰다. 북유럽과 동유럽은 현재까지는 휴면 중인 밀과 유채가 어떤 동해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눈 덮음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정체된 상층 난류가 일주일 중 상당 기간 동안 때때로 소나기를 발생시켰는데 중부와 북부 지역에 내린 비의 총 강수량은 2-30 mm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 100 mm 이상이였다. 이 비는 최근의 건조를 완화시켜주었고 영양생장 중인 겨울 밀의 전망을 좋거나 우수하게 유지시켜주었다.

■ 호주: 두 주 연속, 퀸스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내린 젖는 비 (1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ی)가 그 지역에 아주 필요했던 가뭄 해소를 해주었다. 이 비가 재배기 중 너무 늦게 내렸기 때문에 건조지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크게 개선해주지는 못했지만 비 내리는 날씨가 보충 급수 필요를 줄여 주어서 관개 작물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 최근 비가 반갑기는 했지만 동호주를 잡고 있는 가혹하고 장기적인 가뭄을 끝내려면 반복적으로 젖는 비가 내려야 한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높았고 최대 기온은 대략 섭씨 30도 대 중반에서 낮은 40도 대 사이였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 소나기가 여름 곡물, 유지 작물, 면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최남단 여름 곡물과 유지작물 지역에서는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과 건조함이 지배적이었다. 남서부 (북부 라 팜파와 주변)와 북부 (북부 코르도바의 북쪽과 동쪽) 농업 지역에서 총량 25 mm 이상으로 내린 강우가 다양한 생육기에 있는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 주었다. 대조적으로 남부 코르도바에서 동쪽으로 파라나 강 계곡의 낮은 쪽 (북부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페의 인접 지역들)을 지나기까지 좀 더 건조한 날씨 (총강수량이 지점에 따라서 10 mm 이하)가 우세했고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쪽 생산 지역에서는 2주째 건조가 계속되었다. 남부의 건조는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 특히 겨울 곡류의 수확 후에 파종된 콩에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함)이 밭아에 필요한 수분을 더욱 감소시켜서 추가 강우가 필요하다. 지역 전체의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와 서부 농업 지역에서 평년보다 3-4° C 더 높았고, 다른 곳에서는 2° C 이하로 낮았으며, 많은 북부 지역들은 낮 최고 기온이 40° C 부근 또는 그 이상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6일 현재 옥수수과 콩 파종율은 각각 95 % 및 96 %였다. 최근의 따뜻함과 건조로 수분 보충이 필요한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대표하는 탄딜과 트레스 아로요스에서는 2차 작물 콩 파종율이 각각 88 % 및 85 %였다. 한편 산타페와 차코 이외에서는 보고가 없었던 해바라기는 19 % 수확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의 주요 여름작물 지역들 전체에서 강우는 계속해서 변동이 심하여, 남부 농업 지역에는 건조 포켓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전에 건조했던 북동부 농업 지역에는 이로운 비가 내렸다. 남부 마토 그로소와 미나스 게라이스 북쪽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는 가장 심한 비 (25-50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는 100 mm 초과)가 내렸지만 앞서 언급한 북동부 작물 지대에는 약간의 건조 포켓이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마토 그로소의 서부 및 북부 농업 지역은 강우량이 여전히 계절을 벗어나 적었고 (25 mm 이하), 낮 최고 기온은 종종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하기도 하여 계절 야외 작업에 유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작물들이 일정하게 출현하려면 현재는 수분이 필요하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월 24일 현재 콩은 14 % 수확되었고 옥수수과 면화는 각각 10 % 및 57 %가 파종되었다. 남부 브라질의 큰 구역들이 계절을 벗어나 따뜻하고 건조했고 파라나와 북부 리오 그란데 도 술의 상당한 부분들이 10 mm 이하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부 생산 지역의 많은 곳들이 계절들을 효과적으로 지나서 초기에 파종된 곡류와 유지작물들은 성숙기 중이거나 성숙기 근처에 도달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파라나에서는 1차 작물 옥수수의 약 95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2차 작물 옥수수는 2 % 파종되었다고 한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월 23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85 % 및 52 %가 생식기에서부터 종실비대기 사이에 도달했다. 덧붙여서 옥수수는 22 % 수확되었다.